

疾病 발생을 予測 遺伝因子 조사 研究로

美질병豫防건강증진국 맥기니스씨 研究 보고

앤드 월드 리포트는 최
신호에서 전하고 있다.
유전자의 결합과 관계
가 있는 것으로 현재 확
인된 질환은 △심장병△
氣腫 △유아성당뇨 △다
발성경화증 △일부 癩증
류등이며, 최근에는 △노
인성치매 △언청이 △2
종의 조울증도 유전자와
깊은 관계가 있다는 보
고나오고 있다.



릴 위험이 높다고 경고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하는것과 폐를 방어하는 연구팀은 이같은 유전

AIDS 發病因인 分析중 밝혀져

특정 因子 결합과 疾病은 상관 심장병 및 肺氣腫 등 原因 규명

관계전문가들은 이같은
연구추세가 계속되면 앞
으로 2년내에 인간의 세
포에 들어있는 23쌍의 염
색체중 어떤염색체의 결합
이 어떤질환과 관계가 있
는가를 대충확인할수 있
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美질병예방건강증진국의
마이클 맥기니스씨는 오
는 2천년에 이르른 각
개인이 자신의 유전자형
질이 어떤가를 알아 적
절한 대응조치를 취할수
있게될 것이라고 밝히고
『흡연자에게, 폐암에 걸

특정유전자에 이상이 있
기때문에 금연이 필요하
다고 말하는 충고사이에는
설득면에서 있어 엄청난
차이가 있다』고 말했다.
지난 5년간 유전자결합
과 질병의 관계연구에서
가장 뚜렷한 인과관계가
확인된것은 심장질환.
텍사스대학연구팀은 지
난 83년 동맥경화증이 유
전자변이와 깊은 관계가
있다는것을 밝히고 이 유
전자변이때문에 몸에 해
로운 저밀도단백질(LD
L)을 적절히 제거하지

자변이가 5백명당 1사
람꼴로 나타나며 이들은
30대에도 심장병에 걸릴
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
고하고있다.
연구팀의 마이클 브라
운 박사와 조셉 골드스
타인 박사는 이같은 연
구공로가 인정돼 85년도
노벨의학상을 수상하기도
했다.
유니스 박사는 이같은
연구가 계속되면 앞으로
10년안에 癩을 예방하는
방법이 개발될 것으로내
다보았다.

사람의 유전인자를 조
사해 10년후 혹은 20~30
년후에 어떤 질환에 걸
릴 확률이 높은가를 알
아보는 발병 예측연구가
추진중이다. 사람의 세
포속에있는 유전자를조사
해 질환발생위험도를측
하는 이연구는최근 AIDS
바이러스에 감염된사람중
정작 AIDS 가 발병하는 사람
은 특별한유전인자때문이라는
사실이 밝혀짐에 따라
본격적으로 시작됐다.
이와관련 특정유전인자
의 결합때문에 특정질환
의 발병위험이 높다는것이
의학적으로 확인되면
예방 및 초기치료를 통
해 대부분의 질환을 정
복할수 있게될 것이라고
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

유전성 動脈硬化症 治療가능

다른 성분엔 영향미치지 않고 副作用없어

日本서 선택적 LDL 흡착법 開發

사람의 혈액중에 있는
2종류의 콜레스테롤중
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
는등 주로 인체에 악영
향을 끼치는 저밀도리포
단백질(LDL)만을 제
거하는 「선택적 LDL 흡착
법」이 日本에서 개발돼
대학병원등에서 이용되기
시작했다.

이 방법은 유전적으로
혈중콜레스테롤치가 유별
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
약물치료가 불가능했던 유
전성 고콜레스테롤혈증환
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
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
다.
이 방법은 특히 LDL
만을 선택적으로 제거

하기 때문에 환자에게어
무런 부작용이 없다는것이
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.
이들 환자들의 혈중콜
레스테롤치는 정상인에비
해 3~5배나 높아 각
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
높은 편이다.
의사들은 △콜레스테롤
치가 높고 △심장관상동

맥에 강화증상이 나타나
는 사람과 아킬레스건과
무릎에 황색腫이 자주나
나타는 사람은 유전적인
인자가 있는가 알아보기
위해 가족의 내력을 세
심하게 조사해야하며 특
히 친척중에 심근경색등
동맥경화에 의한 질병이

빈발하는 집안의 아이들
은 어릴때부터 적절한치
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
고 있다.
그러나 LDL 이외의 혈
액성분에는 거의 영향을
끼치지 않을 뿐더러 1
회치료시간도 1~2시간
이면 충분하다고 한다.

선스크린 塗布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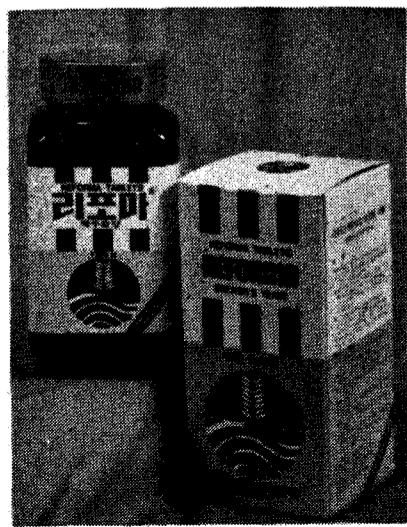
美 피부부암財團, 피부암豫防대책 밝혀

강한 햇빛이 내려찍는 여름철
피부를 잘못 관
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 쉽다.
미국의 경우 모든 암중 가장
흔한것이 피부암
으로서 매년 50만건의 신환이
발생한다.
그러나 이처럼 빈발하는
피부암은 거의 모두가
예방가능한것이다.
미국피부암재단이 마련한
피부암 예방가이드라인
을 소개한다.
△여름철 하루중 태양광선이
가장 강렬한 상오
10시부터 하오 3시까지
일광노출을 최소화할것.
△일광에 노출이 불가피할때
는 일광차단제(선스크린)
를 충분히 발라준다. 날씨가
청명할때뿐만 아니라 흐리거나
안개 낀 날에도 노출피부에
발라주는것이 좋다.

오전 10~오후 3시 皮膚노출을 줄여야

외출하기 15~30분전에
바르고 외출중 2시간간
격으로 덧발라주는것이
효과적이다. 수영을 마치고
물에서 나온직후와 땀을 많이
흘린후에도 잊지않고
바를것.
△모래 눈 물등은 표면반사력이
높아 일광의절반이상
을 피부로 반사시키기때문
에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
주의해야 한다.
△피임약과 같은 특정약품이나
화장품은 햇빛에 대한
피부의 민감도를 더욱 높일
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
제품을 상용하는 사람은
햇빛에 노출되기에 앞서
의사나 약사와 상의할것.
△일광욕실을 피할것.
자외선은 피부를 태우고
피부의 早期老화를 유발
하며 피부암의 위험을 높일
수도 있다.
△갓난아기나 유아는 되도록
햇빛에 직접 노출시키지
말것. 생후 6개월이후에나
선스크린을 충분히 바른후
조금씩 햇빛에 노출시키는
것이 안전하다.
△어릴때부터 어린이들에게
일광차단요령을 훈련
시킬것. 무방비상태로
피부를 강한 햇빛에 노출
시키면 피부의 손상이
일생동안 축적된다.

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!



맥주효모제품
(제조허가번호: 보사부 제27호)
(품목허가번호: 보사부 제1호)

(주)한국바이오에너지
Korea Bio-Energy Co., Ltd.

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-4 3층

맥주효모는

- 간장피로예방인자
 - 혈당조절인자(GTF)
 - 발암억제인자
 - 위장강화인자
 - 고혈압조절인자
-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리포마®는

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
위해 정제(錠劑)로 만든 영양등식품입니다.

(주) 한국바이오에너지는

맥주효모제품 리포마®의 생산 및 보급에
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.

☎ 본사 : 서울 : 547-7056, 548-0264, 부산 : 23-5496, 대구 : 553-0990, 대전 : 252-8070,
전주 : 74-6372

권장소비자가격 : ₩ 18,000